



12면

황도현 전직 전북준 장군
동상 재건립 본격 추진

전주매일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음 12월 8일) 제27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새만금청-군산시, 5개 기업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사 단계부터 사업 구축까지 협력

한국수력원자력·두산중공업·현대로템·린데코리아·특수가스 등과 협약 체결
협약 참여 기관·기업들, 예타 조사 연구 협력·새만금 중심 그린수소 산업 지원 약속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19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 9개 기관·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해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2월, 22개 기관과 기업의 1차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 추가협약으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이 총 27개로 늘어났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새만금)에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사업인 클러스터 구축까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를 생산·저장·운송 및 활용하는 거점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지난 2019년 12월 산업부의 수소융합단지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과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용지를 제공하는 등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조사 연구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전북도(새만금)를 중심으로 그린수소 산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타조사연구에 상호협력 결집, 협력사항 발굴 및 추진, 그밖에 전북도(새만금)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선도적 역할 수행 등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추진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극적인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면서 "전북(새만금)이 그린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RE100(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캠페인)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산과 새만금이 미래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 9개 기관·기업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전북도가 2021년도에는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반 마련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미래 혁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한다. 전북도도 혁신성장산업국은 19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미래먹거리 준비 및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기반 마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 육성 ▲탄소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디지털·그린뉴딜 육성 정책 역량 집중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올해 주요 업무계획

▶ 관련기사 3면

4대 정책목표·8대 과제 제시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형 그린뉴딜

선도 등 4대 정책목표와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경제성장률 회복세

(2.3%)와 한국판 뉴딜, 소부장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산업생태계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북의 강점을 살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주도할 디지털, 그린 뉴딜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4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8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선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종합경기장 내 컨벤션센터 호텔 건립 행정절차 착수

전주시-롯데쇼핑,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일환
내주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내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시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주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경기장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은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에 조성 예정인 5가지 테마 숲 중 하나인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숲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지어주고, 그 대가로 종합경기장 일부 부지를 임대해 백화점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계획돼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 수립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전시컨벤션센터(2만 5,000㎡), 호텔(5,000㎡), 백화점(2만 3,000㎡) 건립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들 시설 건립에는 총 3,975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조사 의뢰가 이달 말 전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넘겨지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타당성조사 수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타당성조사가 착수되면 올 연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12월 공모를 통해 육산경기장, 야구장을 기부받고, 종합경기장 부지 12만 715㎡ 중 6만 3,000㎡(52%)을 양여하는 협약을 롯데쇼핑과 체결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에 부닥치자 시는 부지재생사업으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롯데쇼핑과의 협상을 통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임대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이 건립되면 전주국제영화제, 세계발효식품엑스포, 전주한지축제 등 굵직한 전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간 행사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여러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지역 마이스(MICE) 산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마이스 산업은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가 막대한 만큼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전주 종합경기장은 부지 재생 방식을 통해 시민의 숲과 마이스(MICE) 산업의 혁신기지로 완료되면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신청하고,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의 규모, 건립 시기, 운영 방식 등을 최종 확정된 뒤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각종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2월까지 전

2021 꿈꾸는 남원시민, 펼치는 남원시의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